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며…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자원심의 운영성과 위원회 전환에 따른 문제



월간 『문화예술』 3월호 좌담

일 시 : 2004년 2월 9일(월), 15:00
장 소 : 본원 회의실
참 석

- 진　　행 : 오세곤 · 본지 편집위원 | 연극평론가
- 문　　학 : 황현산 · 고려대교수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문학분야 심의위원
- 시각예술 : 정헌이 · 한성대교수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미술분야 심의위원
- 문화일반 : 손철주 · 학고재 출판주간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문화일반 심의위원



> > >

오세곤 : 『문화예술』 3월호의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예진흥기금 심의가 끝난 후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매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원제도는 문광부나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제도의 모델은 역시 문예진흥기금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완전한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은 되어야 할 겁니다.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요. 어쨌든 위원회 출범 전까지 구체적 개선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고된 대로 이번 문예진흥기금 심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원정책의 발전적 방향까지 제시해봤으면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 지원심의에서 달라진 점을 명시했더군요. 우선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창작 쪽하고 향수 쪽을 각기 A팀 · B팀으로 나눔으로써 내용을 세분화하고 위원도 많이 늘렸다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추천방식을 도입했다는, 두 가지 달라진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금이 폐지됐지만 아직 새로운 재원은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앞으로 희망적으로 보지만 이번만은 과도기 상황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요구는 더 늘어났고 따라서 전체적인 최종 지원 결정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직접 심의하시면서 느끼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꼭 차이가 아니라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거고요. 황현산 선생님께서는 문학 분야 위원장을 맡으셨고, 정헌이 선생님께서는 미술 분야, 손철주 선생님께서는 문화일반 분야 심의를 맡으셨네요. 아마 문학하고 미술은 A팀 · B팀으로 나뉘어 있었죠. 문화일반은 한 팀이었고요.
우선 문학심의를 하셨던 황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2004 문예진흥기금 심의가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 >

황현산 : 달라진 점이라면 우선 분위기부터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원 심의를 맡게 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과거에는 심위의원 각자가 채점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전원일치의 방식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실 공히 각 위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채점을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심의방법은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

오세곤 : 각자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합산했다는 말씀이시죠?

> > >

황현산 : 과거에는 토론을 거쳐서 합의한다고 했지만, 이미 토론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지요. 토론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깐 한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따라가게 되는 게 의례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큰사람이나 정보가 많은 분이 이미 가부를 결정해 놓기 마련이지요. 게다가 한국사회라고 하는 것이 안면사회여서 한 사람이 적극적인 찬성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걸고 감히 반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지요.



> > >

손철주 :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처음이라 예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문화일반 분야의 심의 분위기는 조금 색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문학 · 공연분야는 창작과 향수 쪽으로 해서 A · B로 나눠 심의했다고 하는데 문화일반 분야는 분야 전체가 뒤섞여 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됐습니다. 미술 · 연극 · 음악 · 문학 · 출판 · 언론 등에 종사하셨던 분들까지 열 분 정도가 모였었는데, 전문성이 각기 다른 심의위원들이 모여있어서인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할 때 자신의 전공분야를 상당히 객관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채점을 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슈가 나오면 상당히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토론하는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자기 전공분야를 가능한 한 객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슈를 설명하는 위원들이 자기의 주장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령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 사실을 설명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묘하게 견제한다고 할까, 제어와 견제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해 본 저의 입장에서 채점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 > >

정헌이 : 저는 이번에 미술 창작지원 A팀 심의와 '찾아가는 예술' 분야의 심의를 맡았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심의에는 작년에도 참가했는데, 작년에는 다원예술지원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술창작 A분과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참가한 심의에서는 어떤 한 분의 목소리가 컸다던가 어느 한 분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었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분야는 달랐지만, 작년과 비교하여 이번 2004년도의 심의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예진흥원 측에서 집중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심의에 참여해보면 심의위원들이 애초에는 수준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가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가게되는 것이 사실인데, 올해는 기준선을 낮추어서 조금씩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원 측이 집중지원에 대한 방향제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심의할 때는 제일 높은 점수 하나와 제일 낮은 점수 하나를 빼고 점수 환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심의 평균의 40%를 넘는 점수만 탈락시키는 걸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 심의위원의 평가가 다른 심의위원들의 생각과 너무 현격하게 다를 때, 그 점수를 심의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문예진흥원 측의 배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 > >

오세곤 : 그런 게 있었네요. 평균보다 위아래로 40% 이상 차이가 나면 제외한다는…

> > >

정헌이 : 네, 작년에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 >

황현산 : 여기 계신 정헌이 선생님도 참여하셨지만, 저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심의를 했는데, 1차 서류심의를 끝내고 나서 일정한 권역에 있는 단체 신청자들을 불러서 인터뷰심의를 했습니다. 인터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의를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점, 간과했던 점들을 발견했고, 인터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더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인터뷰심의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철주 : 저 또한 공감합니다. 문화일반 분야는 인터뷰심의가 없었습니다. 분야가 생소한 부분들은 다행히 심의위원들 중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도 조금 미흡하다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진행을 도와주는 문예진흥원 직원분들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직원분들의 자세 또한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금 지원 업무에 종사해오신 분들이니까 어쩌면 심의위원들보다 그간의 이력이나 속사정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체나 개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심의위원들의 요점을 정리한 후, 그것을 밖에 들고 나가서 전화를 통해 신청자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충 설명을 듣고 와서,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터뷰 심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예진흥진흥 관계자들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 신청자들의 소명 같은 것을 유선상으로라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인터뷰 심의와 대면심의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였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던 점입니다.



오세곤 : 사실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 쪽에서 지지하는 것을 안 된다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부익부빈익빈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폐단을 많이들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채점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안전장치로 상하점수를 제외하거나 이번처럼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수를 제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장의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알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 분들의 점수를 합산해도 좋겠지만, 그것이 편차가 있을 때는 오히려 토론과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사실 심의위원을 결정할 때 신청한 단체의 장들은 배제합니다. 예를 들면, 연극의 경우 극단대표는 거의 모두 제외됩니다. 결국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란 점에선 맞지만 잘못하면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로만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별 교류없이 단독으로 작업한다든가 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한 단체의 사업이 탈락하면 심의위원들이 그 단체를 잘 모르거나 비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심의위원의 수를 늘리거나 공정을 기하는 것 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들이 3년 임기인데, 그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접 관여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스스로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에 비해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은 사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받고 짧은 시간에 거의 서류만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게다가 토론해서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채점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요.

손철주 : 토론과 채점을 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오세곤 : 근데 조금 전 황현산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사람이 주장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황현산 : 그건 예전의 일입니다. 심의를 할 때 대개 만장일치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치지 않거나 하는 심의였거든요.

손철주 : 기준점들이 획일화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지원 목표와 심의의 4대 기본요소를 참조하고 다시 신청내용에 따라 가중치가 서로 다르게 주어지는 형태였는데 이런 방식이 예전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어느 한 분(그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아무리 잘 하신다 해도 채점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심의의 기본 4가지 요소와 문예진흥원의 지원 목표가 있어 이것들이 서로 섞여서

가중치가 생기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에 크게 좌우되진 않았습니다. 그 분의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어떠하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매기다 보니, 토론이 점수를 매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나오고 결정이 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놀란 측면이 많았습니다. 아니, 토론할 때는 수긍하는 것처럼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그 분위기로 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 탈락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역시 아무리 발제를 잘 하고 토론을 한다해도 판단은 심의위원 각자의 몫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전문적인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 > >

오세곤 : 토론을 배제해서 정보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잘못된 소문이군요. 하지만 역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화를 위해서 소수화했을 때 발생하기 쉬운 권력화를 방지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고요. 현재 문예진흥원의 심의위원 시스템은 권력화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권력화 우려고요. 문화예술위원회가 되면 처음 시안으로는 11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은 각 장르를 대표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종의 새로운 문화권력자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그 소위원회도 매년 심의위원들이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역시 한 장르 전체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장 많이 들 우려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일종의 고시를 통해 평가전문가를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모든 문학상이나 예술상이 다 해당되므로 현실성이 없기는 하지만, 거기서 평가를 위한 전문성이라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이는 상황을, 즉 심의위원 개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알아 하는 식으로 반발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예진흥원 측의 정보 제공 노력이 절실합니다. 물론 정보 제공이 왜곡되면 평가도 왜곡되고 따라서 객관적이어야 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 너무 조심스럽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설령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어떤 경우엔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편중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전제로 문예진흥원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다며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주인 눈치 보듯 몰아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를 들어 지자체 경우라고 했을 때 "이건 도지사님이 무척 고민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주인 뜻대로 해주지 뭐" 하면서 우선 선정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폐단을 피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공정성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서류를 검토하며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답답할 수밖에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안을 보면 정책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국 산하로 돼 있던데, 위원장 직속으로 돼야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겠죠. 심의위원도 더 전문화돼야겠지만, 설령 지금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심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정보 제공이 돼야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단체든 개인이든 계속 정보가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바탕 위에 심의위원들의 현장 경험이 더해지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스템이 바람직합니다.



황현산 :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관 역시 전문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들의 심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심의과정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한국사회가 안면사회가 되어서 까다로운 논의부터 적당히 빠져나가려 하고 개선의 의지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데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가 심의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하고 그런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곤 :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서류심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인터뷰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예산 중 심의나 평가에 너무 큰 비율이 할당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성이나 정보 축적 정도가 취약한 현재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는요. 물론 신청만 하면 다 인터뷰를 할 것이냐, 어떤 제한을 두고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1·2차로 나누어 1차 심의를 통과하면 일종의 심층 심의로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인터뷰가 있었던 것이 '찾아가는 예술지원'에 국한된 것이었나요?



정헌이 : 아닙니다. 창작 지원 A팀 심의에서 '신진작가지원' 분야의 경우 인터뷰심의를 했습니다.
이번 문예진흥기금 심의가 끝나고 미술 분야에 대해 특성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좌담회에 오는 내내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좌담회가 문예진흥기금 심의에 대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좌담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올해의 문예진흥기금 심의에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으며,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2004 문예진흥기금 심의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 되었나요?

오세곤 : 미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술 관련 사항이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지만 미술 쪽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이라서 그런 것 같고, 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연극계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정헌이 : 저는 제가 참여했던 미술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문제점들이 뭐였는지 모르겠군요. 연극 분야에 무슨 민원이 있었는지 문학 분야에는 뭐가 문제였는지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오세곤 : 전 모든 분야의 문제점들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산 : 문학쪽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문학향수쪽 B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A팀 창작지원쪽 일부에서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다는 지적이 있은 듯 한데 이것은 지원금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실제 지원금을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수 문학쪽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랫동안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 중 일부 단체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문예진흥원측에 전화를 하여 불만의 뜻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심의한 사람으로서 곤혹스러운 점인데, 이제까지 예술 활동이나 그 범주

와는 관계없이 어떤 성별의 사람들, 어떤 지역, 어떤 세대의 사람들 하는 식으로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해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느 시기에 지원을 받았던 것도 실은 불합리한데,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오세곤 : 하지만 연극계의 경우 단체들의 항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체들은 회비도 있지만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지원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NGO에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예진흥기금 심의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면서 다들 억울해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기금지원에 영향을 끼친것 아니냐 하는 식이죠. 사실 NGO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원 범주에서는 1단체 1사업 선정 원칙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한 쪽으로 사업이 몰릴 수도 있는데 너무 도식적으로 간다는 비난이죠. 몇 년간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액수를 삭감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요. 그리고 누구한테 잘못 보여서 떨어졌다는 소리는 늘 있는 것이고, 또 소액 다건을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백만 원, 천만 원씩 나눠주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연극쪽 얘기는 대강 이런 정돕니다.



> > >

정헌이 : 제가 미술 분야에 참가하신 다른 심의위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창작 분야 A팀 심의에 임하면서 기획안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지원자가 예년에 지원을 받았는가 못받았는가 그런 다른 정보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지원 단체나 개인이 돈이 있는 단체냐 없는 개인이냐 하는 점도 가능한 한 고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B팀은 미술향유 사업에 대한 심의이니 B팀 심의에 임하신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창작지원금은 미술인들이 나누어 갖는 돈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즉 창의적인 미술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기금입니다. 기획안의 수준과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미술분야 심의에 대한 민원 제기는 A팀 심의 대상이었던 한 사립미술관의 연구 프로젝트 탈락을 B팀 심의에서 미술관련 학회들이 일괄 탈락된 것과 연계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A팀 심의와 B팀 심의는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끼리도 서로 모르고 각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우리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A팀 심의에서 탈락한 연구 프로젝트와 B팀 심의에서 탈락한 학회지원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올해의 문예진흥기금 심의가 특정분야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편파적인 심의를 하였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B팀에서 학술단체가 일괄 탈락한 사유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학술단체가 그동안 '보존조사연구' 라는 항목에서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심의에서 몇몇 심의위원들이 '보존조사' 라는 항목에서 학회와 일반인들이 함께 경쟁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니, 학술단체는 학진의 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따로 학술단체 지원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학술단체들의 지원 요청금 만으로도 보존조사 분야에 할당된 예산을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학술단체만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토론 끝에 다수결로 학회지원은 이번 심의에서 배제하고 따로 학회지원 분야를 설정해달라고 문예진흥원에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B팀 심사위원들은 문예진흥기금을 놓고 미술단체와 학술단체가 함께 섞여서 지원을 하니 학술단체 지원 항목을 따로 만들고, 보존조사연구 분야는 미술 단체 쪽으로 지원을 하자는 결정을 한 셈인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러한 결정 내용이라기보다는, 과연 심

의위원들이 심의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번 심의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심의위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심의분야의 사업목적과 스스로 심의위원의 권한에 대한 한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문예진흥원측에서 충분히 인지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B팀 심의위원들에게 '여기서 토론을 통해 학술단체를 일괄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심의위원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행상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들의 교육이라 할까요, 자신이 심의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목적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문예진흥원에서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중입니다. 아직 이 지원제도가 정착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바뀌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A팀에서 탈락한 연구 프로젝트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B팀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A팀 심의에서 탈락한 연구 프로젝트는 단지 받은 점수가 높지 않아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B팀 학술단체 문제와 연관시켜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철주 : 조금 전에 학회에서 신청한 것이 '보존조사연구' 라고 했습니까?

정헌이 : 네

현재 지원심의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철주 : 어느 분야든지 다 신청할 때는 유형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일정 유형을 정했지만 그게 몸을 옷에 맞추는 꼴이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그 장르나 유형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예진흥원도 이것을 수용하려면 지원 신청을 받는 카테고리를 대단히 세분화해야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예활동에서 성격을 규정하기가 까다로운 분야가 더 많아질텐데…

정헌이 :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학회지원 문제도 결국 그 문제였고, 제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도 지원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어느 분야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인 저 자신도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것은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찾아가는 예술지원', '문화예술체험 지원' 이라는 이 세 분야가 어떻게 지원 목적이 다른지에 대해 한참을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막상 심의하다보니 어떤 건 저쪽에 신청해야 할 것이 이쪽에, 이쪽 것이 저쪽에 가 있고 그래요. 지원자가 엉뚱한데 가서 자기 사업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이 아니라, '함께하는' 에 지원했어야 했다"고 오히려 설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 >
손철주 : 그래서 문예진흥원이 공고를 낼 때 이러저러한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예진흥원이 판단을 해서 해당 분야로 접수하겠다는 고지가 돼 있더라구요. 특히 보존조사연구 부분을 보면서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령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채록을 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문제하고, 학회가 세미나를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의 결과를 학회지로 보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였고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 > >
정헌이 :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기금이 지원됐나 알아보니 한국근대여류사진 완판본춘향가수절가 보존, 김수근문화재단이 김수근 작업보존 관련해서 받았고, 김종영미술관이 3.1독립선언 관련해서 받았고, 세종한글서예학술세미나가 받았고, 자료평네트웍, 대안공간 풀의 작가론 자료집 발간 사업 등이 받았더군요.

> > >
오세곤 : 한국연극학회에서는 받았고 한국음악사학회에서도 받았고, 그러니까 연극하고 음악은 학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평론가협회 같은 데서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세미나나 심포지엄인데 받았고, 그런데 미술 분야만 못 받았군요.

> > >
정헌이 : 납득이 안가죠. 보존조사연구 분야로 총 36건이 신청이 됐는데 그 중 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 등 9개가 학술 관련단체입니다. 그 학술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이 분야의 지원 총예산보다 많아요. 그렇다면 이 학술단체들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 학회는 주고 어디 학회는 안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왜 학술진흥재단도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을 학회에 지원해 주느냐는 말들이 오가게 된거죠. 그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오세곤 : 각 분야에서 한 분씩 모인 기금지원심의회의가 있죠? 사실 이 문제는 거기서 다뤘어야 할 것 같아요.

> > >
손철주 : 지원신청 분야에 대한 분류가 문예진흥원에서도 고민인 것 같고 신청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 > >

정헌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지원대상 분류를 비롯한 지원 시스템 정비의 문제라고 봅니다.



> > >

손철주 : 근데 어떤 경우에 이쪽 분야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하면 반대로 경쟁이 높아지는 예도 있습니다. 지원분류와 관련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문예진흥원쪽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 > >

정헌이 : 그게 바로 문예진흥원의 현재 실력을 보여주는 좌표가 아닐까요? 그 동안에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계속 이걸, 즉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지원 분야의 분류, 심의방법, 평가방법의 수준 등이죠. 문예진흥원의 퀄리티는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심의를 원활하고 매끄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 > >

오세곤 : 사실 기본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하고 지원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은 몇 년 전에 많이 바뀐 거죠. 한 3년 됐나요. 바꾼 다음에 아직 적응이 안 된 것도 같고, 그래서 같은 것을 여기저기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어디가 비율이 낮을지 눈치작전을 펴기도 하고, 한 단체가 한 군데 쏠려서 내면 다 떨어지니까 기술적으로 분배하기도 하고, 사실 심의위원들은 그걸 체크할 수 없거든요. 정책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체크해서 제공해야죠.

> > >

정헌이 : 현재 문예진흥원은 지나치게 공정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실력은 우선 일단 큰 구분,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거죠. 그것이 바로 서면 공정성은 그대로 따라올텐데… 1차적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40% 넘는 점수 자르기 등 이런데 더 신경쓰는 것 같아요. 문예진흥원이 위원회가 된다지요? 제일 중요한게 비전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몇년 동안 책임지고 자신있게 밀고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문예진흥원은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간 문예진흥원 임직원들이 연구도 많이 했고 이젠 전문성을 가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너무 조심스럽고, 심의위원들한테 자신들의 의견제시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그놈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이유이겠지만…

> > >

오세곤 : 사실 문예진흥원은 경험도 많고…

> > >

정헌이 : 근데 왜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거죠? 그래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이 일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 >

오세곤 : 인정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좀전에 말씀하신 미술 분야의 학회 지원 건만 해도 그렇게 빼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개입을 했어야죠. 한 분야에서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권한을 주고 어떤 부분에 제한을 둘지 정확해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권을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반면에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틀을 미리 짜놓고…

> > >

정헌이 : 그러니깐 상당히 방어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정하게 만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게 만들겠다는 건 결국 욕먹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정말 욕을 많이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잡음이 없을까를 생각해서는 문화정책이 소신있게 나갈 수 없습니다.

> > >

황현산 : 근데 욕먹는 게 심의위원들이 항의를 받는 것과 문예진흥진흥쪽의 담당자들이 항의를 받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파장이 다르지요. 심의위원들이 견뎌내야 할 것을 담당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지요.

> > >

정헌이 : 앞으로 위원회로 전환이 될 때 그 위원회가 정말로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 > >

오세곤 : 누군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심의위원들이 욕을 먹는 게 부담이 덜하죠.

> > >

정헌이 : 심의위원들은 얼마든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 > >

오세곤 : 그러니까 여전히 손님이라는 거죠. 잠깐 참여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 방향을 잘 잡아야지요.

> > >

정헌이 : 근데 심의위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도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심의위원들이 맘이 약해지니깐 나눠주고 싶어하죠.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문예진흥기금이 공중분해됩니다. 사실 국가 예산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예요. 이번 미술 분야는 약 15억원 정도였죠? 그런데, 그나마 그 돈이 공중분해되면 우리나라 문화정책과는 아무 상관없이 적당히 나눠갖고 끝나게 되요. 그건 너무 큰 문제거든요. 결국 정책방향이 없어지고, 이 기금을 진행하는 기관도 방향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나지 않을 심의위원들 대충 모아가지고 형식적인 심의를 해서 기금도 잡음나지 않게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공중분해되는 지원금이라면 그건 정치일지는 몰라도 사실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해요.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 연구원이건 위원회건 간에 공중분해되는 예산집행을 안 하려면 반드시 정책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황현산 : 지원정책의 방향을 세운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것과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심의위원들은 전문성뿐만이 아닌 열성을 가지고 심의 잘하겠다는 생각을 지니는 한편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신청을 하면 유리할 분야가 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분야를 잘못 선정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진작가들 지원문제… 신진작가들에게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 이 분야를 따로 만들었는데 신진작가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줄 때에는 그 분야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본 분야에 합쳐놓고 신진작가들에게 심의상 프리미엄을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적정한 비율을 정해주던지…



> > >

오세곤 : 정책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원이야말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확실한 방향 제시 수단이고, 그

러니까 정책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지표만 봐도 아직까지 추상적입니다. 비슷한 예로 슈퍼에 가서 고추를 사면 몇 십원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정확한 게 아니라 정확의 가장이죠. 맨 처음 가격 책정 원칙을 모르니까요. 그건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정확을 기하는 거예요. 심의에 사용되는 평가지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모호한 걸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객관성을 찾으라니까 굉장히 힘들죠. 카테고리를 나눈 것도 그렇고 평가지표를 나눈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결과겠지만,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반면 쉽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눈치만 보고, 이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평가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은행을 보십시오. 개인이든 회사든 신용 평가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한번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얼마나 불편하고요. 우리도 상시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신진의 경우 아이디어가 좋으면 줘야 하고, 신진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괴로워도 쫓아다니는 일종의 신용평가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평가, 지원받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런 게 전부 누적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린 누적이 돼 있지 않거든요. 물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전년도 평가가 A면 더 주고 B면 그대로 주고 C면 깎는다는 정도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훨씬 정교해야죠. 게다가 모든 심의에 적용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원 범주도 좀더 명확해야 하고, 범주에 없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청 가능해야 합니다. 설령 기획서 전문가가 쓴 것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엉성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의 참신성도 살필 줄 알아야 하고요.



> > >

정헌이 : 황교수님께서도 신진작가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문학 · 연극 · 미술 다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작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우선 가장 힘든 것이 당장의 생계대책입니다. 신진작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500만원 주어 개인전 한번 도와주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3년 이상 최저 생계비를 제공해 주는 지원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젊은이들이 모두 다 뛰어난 작가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속에서 십년에 한 두명밖에 건지지 못한다고 해도, 그 한 두 사람 때문에라도 그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황현산 : 어느 분야에나 많은 거름을 준 결과가 한 두 명으로 꽃 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넓은 지원이 없으면 그 한 두 명의 수확도 기대하지 어렵지요.

향후 지원심의제도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 >

정헌이 : 근데 말씀드린 신진 작가 최저 생계비 지원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없는 예술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돈' 은 아니라는 점을 한편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문예진흥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그것만은 분명한 일이다" 평소 존경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이긴 하나 저는 이런 식으로는 문화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기획의 질과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획이 있으면 당당히 국가의 돈을 지원하는 거지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서도 신청한 것은 신청자의 문제이지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면 안될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심의과정에서 자꾸 이 사람이 꼭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야 할 사람 아니냐, 돈 있지 않느냐, 이 단체가 돈 있는 단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작년에 받았는데 왜 이 사람

에게 또 주나 이런 말들도 나와요. 미국의 경우는 일단 젊은 작가가 한번 문예진흥기금을 받으면 다음 해에 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지요. 지속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다가도 희망이 없으면 끊어버리지만, 한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만큼 한 작가가 예술계에서 인정받는 과정이고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는 것이 명예가 되지요. 근데, 이 사람 돈 있냐 없냐, 이 단체 왜 계속 받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눠주기가 되거든요. 매년, 철저하게 퀄리티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 >

오세곤 :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수월성을 근거로 주는 것과는 분리가 되어야죠. 단체도 마찬가집니다. 신진 단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적어도 몇 년 간 지원을 한 뒤 결과를 보고 그 이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 > >

황현산 :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떤 장소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모두 예상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되도록이면 폭을 넓게 높게 해서 그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늘 공정성 시비가 뒤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는 일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전망을 제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 >

정헌이 : 미술분야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단체전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변화의 모색이 없는 연례행사에 속하는 전시 지원요청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탈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어떤 사람들이 취미활동처럼 하는 행사에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간 지속적으로 지원된 단체들의 탈락에 대해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연례행사가 타성에 빠져있을 경우, 어떤 새로운 활로나 방향의 모색이 없을 경우에는 그간 관례적으로 지원을 했더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체가 생명력을 갖기위해 뭔가를 모색해서 다음 해에 다시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님 이번 한번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 죽어버렸다고 하면 할 수 없는거죠. 그게 변화고 발전 아닐까요? 좀 잔인하지만.

> > >

오세곤 :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지원이 끊긴다 했을 때 반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요.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못했으면 떨어졌을까 하기보다는, 계속 지원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어떡하느냐, 예고라도 해줘야지,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줄인다든가, 일단 줄여서 노력하고 개선하면 환원시키고, 그래도 여전히 엉터리면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요. 참 어려운 것이, 일단 떨어지면 불만을 갖게 되고, 남의 일이니까 깊이 따져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불만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해 주고, 그렇게 논리가 결여된 감정적 결합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확산되기도 하죠. 역시 엄격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또 상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신뢰를 얻어야 해결될 겁니다. 소위 로비를 못해서 떨어졌다는 반발이 없어지려면요.

> > >

황현산 : 일부 예술단체는 예술 자영사업 비슷하게 변질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매년 얼마큼의 지원금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사업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계획들, 그런 신청서를 보면 신청자들이 심의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어떤 권력관계나 정실에 의해 좌우된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라는 것이 실재하기에 심의하는 사람들은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문예진흥진흥쪽에서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단체들의 사업이 탈락될 때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올바른 지원정책의 설정과 그에 대한 과감한 의지가 모두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 > >

오세곤 : 문예진흥원 측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개인사업처럼 탈락한 행사가 어떤 건지 사실 상당히 큰 행사까지도 거의 개인사업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정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왔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제, 문예진흥기금에만 의존할 때는 아닙니다.

> > >

정헌이 :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문예진흥기금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문예진흥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더 예민해지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제만이라도 연구해서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했을 때 세제혜택 등 차선책을 마련한다면 예술지원의 방식이 좀 더 다양화될 것입니다. 직접지원도 넓혀가야 하지만 뭔가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생기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의 통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문예진흥기금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서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분야를 B분야, 즉 미술향수 분야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연 향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에 예산이 4,100만원밖에 안되요. 장애인이라든가 제도권 밖에서, 그러니까 미술을 생활 속에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원을 어디서 해야합니까. 이 분야의 예산이 4,100만원밖에 안되니까 "함께하는"이라는 명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함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미술분야는 굉장히 자기 치료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자기 심리치료가 될 수 있고 개개인이 자기를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국민체육진흥처럼, 문예진흥기금이 일반인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술단체의 타성화된 연례행사와는 다른, 국민의 문화 향수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분야의 포지션은 과연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 4,100만원밖에 안되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활로가, 사실은 문예진흥기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시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좀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문예진흥원이면 문예진흥원, 구청이면 구청, 어디에서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4,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겠어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변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 > >

오세곤 : 세제혜택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직은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국가 사회가 기초예술분야에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하다 할 때, 그것이 기업이건 지역이건 중앙정부건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얼마 모아놨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모자라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확보해 줘야 당연한 거 아닙

니까. 기금 확보해서 이자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매년 예산을 책정해야죠. 기초예술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모아놓은 기금은 오히려 긴급복구 성격의 자금으로 과감히 써야하고요. 다 써버리면 또 방법이 나올 겁니다. 문화예술위원회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재원문제인데, 우선 문광부에서 쓰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국고예산 중 상당 부분을 문화예술위원회로 돌린다는 거고, 또 기금 이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로또복권 수익금에서 추가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몇 년째 2~3백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전제로 위원회 전환을 추진하는 건데, 그러기에 더더욱 지원 시스템의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체계적인 전체 그림이 있어야겠죠. 현재는 중복도 많고 대단히 산만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을 받으면 서울시 무대제작지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지원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예진흥기금은 돈이 적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형 파악과 종합적인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산재하는 지원금 현황도 파악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성격도 조정하고, 그 중심 역할은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이 해야 합니다. 문예진흥원이 그 동안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획기적인 태도 내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겁니다.



> > >

정헌이 : 결국 위원회의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겠네요. 이번 2004 문예진흥기금 심의를 놓고도 심의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했다고 말들이 많았지요. 예총 · 민예총 그 문제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편파적 구성이 아닌 공정한 심의위원이냐, 이거 참 어렵지요. 어떤 분의 의견이 인력뱅크를 가동해서 무작위로 뽑기를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래야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회의도 아니고, 한 나라의 문예진흥 정책을 끌어갈 기구인데, 그걸 사다리타기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문예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어떤 평가 전문단을 선임해야 한다면, 담당자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책임질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선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일을 가장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머리를 짜내서 뽑아야지, 그걸 제비뽑기 식으로 인력뱅크에서 뽑는다면 아무리 그게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정책기구이겠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문예진흥원의 사활을 걸고 진지하게 연구해야지요. 문화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따른 결과를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평가해야 하구요.

> > >

오세곤 : 공정하게 한다고 다 질이 형편없는 건 아니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 > >

정헌이 :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의 인프라 인력 있죠.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다들 창작만 한다고 해서 인프라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요. 행정력과 기획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쪽으로도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이든 기획이든 그리고 이론이든 평론이든 간에 해외프로그램 참가지원 항목을 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과 함께 놀게 해주는 것, 함께 뒹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긴 안목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실질적인 기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국제교류 관련 지원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인재를 육성해낸다는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

오세곤 :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역량만으로 사람이 없다 할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키워야죠.

> > >

정헌이 :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미술계만 해두요 그 역량이라는 것이… 참 그렇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키워내야죠



> > >

오세곤 : 그럼요. 부족해도 누군가를 선택해서 일정 기간 안정되게 일하도록 밀어주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재신임 여부를 가리고, 그러다 보면 능력있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번 서울공연예술제 때 자체 백서 발간을 담당했었고, 문화부하고 문예진흥원 양쪽에서 평가도 맡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규모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경우 5,000만원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1,000만원은 돈으로 주지 말고 관객을 보내주자. 표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관객이 연극을 보고 간단한 앙케이트를 하게 합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전문평가단도 구성을 해서 평을 쓰게 해야죠. 그렇게 전문평가단과 모니터단의 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지난 번에는 백서에 실을 목적으로 50명의 모니터요원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평가지표가 어설프긴 했지만, 그래도 점수를 낼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평가단하고 상당히 일치하더군요. 적어도 전혀 아닌 작품은 만장일치로 잡아내던데요. 그러니 50명이나 100명이 아닌 1,000명쯤 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더욱 적극적이라면 꼭 지원금이 나가는 극단이 아닌 일반 극단도 신청만 하면 1,000명씩 보내서 평가해 보자. 서울의 경우 1년에 200편 쯤을 대상으로 한다면 20억원이 드는데, 서울시 무대제작지원금이 40억원 규모거든요.

물론 그러면 평가만 하다 마느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돈도 결국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사후평가가 허술하다보니까 지원금을 받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 들어가는 건 다 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제안한 식의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런 편법이 방지될 거라는 거죠. 평가가 나쁘면 다음부턴 지원이 끊길 테니까요. 물론 어떻게 일반 대중을 믿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제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론 거칠지만 관객 모니터단과 전문평가단이 공동으로 안 좋다면 그건 안 좋은 거고, 공동으로 좋다면 그건 좋은 거고,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면 그건 연



구 대상이고 하는 정도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또 평가도 더 전문화되고 그래 결국엔 이런 식의 대중을 이용한 평가제도가 불필요해지고요. 상당히 즐거운 상상입니다만… 앞에서 못하신 말씀을 보충해 주시지요.

> > >
정헌이 : 우리 미술 분야에서 민원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심의 분과위원장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문예진흥원장이 낙점한 것이 아니라 당일 모인 심의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만장일치로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대개는 가장 연장자이신 분을 박수로 추대합니다.

오세곤 : 늘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 > >
정헌이 : 그렇죠. 근데 위원장이 무슨 단체 사람이라는 둥 하는 민원이 있었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권한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밝혀야겠네요. 토론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지만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 > >
황현산 : 이는 문학의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원 장르의 문제도 다시 고찰하고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 장르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관례적으로 어떤 장르라는 이름이 있기에 그 장르마다 모두 지원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와 시조와 동시가 동일한 지원 분야에서 겨룰 수 있고, 평론과 수필이 같은 산문분야에서 통합심의될 때 지원 방식을 세련되게 하고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극쪽에서는 표를 사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문학 분야에서 작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고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제에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원고료를 지원하게 되면 다원적으로 심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
정헌이 : 어떤 원고료를 주는 거죠.

> > >
황현산 : 문예지에다 싣는 원고료를 주는 거죠.

> > >
정헌이 : 그럼 문예지에서는 원고료를 주지 않나요?
황현산 : 원고료를 주긴 하지만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고 아예 주지 않는 문예지도 있지요.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원고료로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지요.

> > >
오세곤 : 연극에서는 종종 지원 항목에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만 썩 잘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헌이 : 희곡 쓰는 친구가 있는데 희곡 써서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하더군요. 작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이고 희곡원고료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구요. 방송작가에 비하면 참 말도 안되는 사정이더군요.

황현산 :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료도 주지 않고 발표만 해주면 감사하고 있죠.

오세곤 : 극단 대표들은 지원금에서 작가료만 의무적으로 지급하면 무대나 다른 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죠.

정헌이 : 그래도 배우 개런티는 나가잖아요.



오세곤 :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적자가 나도 인쇄비나 대관료는 꼭 줘야하는 거고 배우가 됐건 작가가 됐건 인건비는 그 다음이나 다음다음이고… 배우 중에서도 안주면 안 되는 배우들만 주는 거죠. 그러니 최저 생계도 유지 못 하고 그러니 다들 떠나는 겁니다. 우스개 소린지 처절한 소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극계에선 미친 사람하고 무능력한 사람만 남는다고 합니다. 연극에 미친 사람하고 무능력해서 다른 데로 못 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미친 사람도 나중엔 무능력해지고 그래 결국 모두 무능력한…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최저 생계, 사실 그거 해결 못하면 지원이 아닌 거죠. 특히 신진 지원은 그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손선생님도…

심의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요.



손철주 : 문제점과 개선방향, 위원회 방향 등에 대해 뭉뚱그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심의의 문제점입니다. 인터뷰 심의가 없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서류심의가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페이퍼웍을 보니까 발제능력이라든가 구성 · 예측 능력 등을 다 합쳐서, 기안능력이 뛰어난 신청자들이 우수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심의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일반 분야에서만 보자면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분과 단체의 기획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른바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월했기 때문에 대면심의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만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점수가 많이 간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반면 다른 단체의 경우 기획력은 빈약하지만 그 문면에 잘 표현되지 못한 의도나 추진능력과 기존 평판 등을 살펴보건대 지원을 받을 만큼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종이에 적힌 기획서라는 거죠. 그 기획서에는 기술적으로 미비한 측면들, 이를테면 아젠다를 설정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든가, 설명요소가 충분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내공을 쌓을 만큼 쌓은 분들이 점수를 적게 받은 상황도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분들은 혹시 기획서에 어떤 허점과 미비점이 있는지 알아봤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야무진 기획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프로냄새가 물씬나는 기획서에 대해 야박하고 모질게 평가를 한 쪽이었습니다. 오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에게 기획서를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도 있고 해서 페이퍼웍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심의 중에 느꼈습니다. 앞으로 대면심의 같은 것도 장르에 상관없이 조금씩 늘려야 할 겁니다. 또 저는 심의를 하면서 시간부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심의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끝냈는데 저는 못 끝내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고

혼자 남아 심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가령 지금 이번만 해도 3,000건이 넘는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첫 날 300건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300건을 본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신청서를 다 읽고 심의목표에 맞춰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과욕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심의에 참여해서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좀더 꼼꼼히 봐야겠다는 맘도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의의 전문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물량 자체가 너무나 버거웠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한달동안한꺼번에 지원 신청을 받는 걸로 압니다. 이것을 수시별 접수를 하고 분기별 평가와 연말 평가를 취합해서 심의를 하는 건 어떨는지. 그렇다면 심의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 > >

황현산 : 심의하기는 편리하겠지만 문예진흥원에서는 굉장히 일이 벅차질 것 같고 일반 신청자들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 >

손철주 : 문예진흥원에서는 기금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위원회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예진흥원에 기금심의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한달 동안 신청을 받는데 7월쯤 기획된 것도 미뤄두었다가 10월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정된 행사에 대해 각 단체나 개인들이 10월 한 달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접수는 수시로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년 할 행사가 결정이 되면 그 시점에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때마다 심의위원들이 모일 순 없으니깐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심의단이 결정을 하고 채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신청된 것은 하반기에 심의를 하고… 마지막 심의는 이번처럼 12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하되, 시간은 좀 길었으면 합니다. 상시 · 수시 · 분기별 접수와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론이나 심의회를 할 경우에 그 회의록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에서 투명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토론된 것들이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심의할 때 나누는 얘기들에서 개인적인 연분같은 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공개된다면 오히려 자신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져서 얘기를 잘 못한다 치면 그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측면이구요. 그런 것까지 감당하는 책임있는 심의 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 >

오세곤 :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공연예술제 백서에서 회의록을 달래서 공개했는데, 결론은 잘 했다는 생각입니다. 작품 선정에 대해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공개가 되니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 > >

손철주 : 심의위원 양식에 대한 감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 >

오세곤 : 물론 이것도 모든 것이 개선된 후에는 별 필요가 없겠죠. 열성적이고 전문화된 양심적인 인물, 그래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면요. 그렇게 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대규모 모니터단 운영이나 회의록 공개 제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 문예진흥원도 스스로 불편한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회의록뿐 아니라 지원 관련 자료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종 결과만 발표되지 않습니까. 신청상황은 전체 통계만 나오고요.

세부적인 목록이 있어서 최종결과와 비교해 보면, 물론 방대하겠지만, 문제가 뭔지 좀더 분명해질 겁니다. 아예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양한 통계지표를 추출해 발표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 > >

정헌이 : 미술 분야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요구를 하면 심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오세곤 : 그러나 전체를 알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속해있는 것만 알 수 있죠.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근거로 향후 보완책을 내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쓸데없이 소문으로 돌아다니는 평가에 귀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이 훨씬 생산적이죠.

> > >

손철주 : 심의하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 책임이 아니라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다면 1년간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책임은 심의를 하면서 자신이 보인 독단과 편향성을 다 끌어안는 책임입니다. 누구나 독단과 편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른 독단과 편향을 가진 심의위원들과 마찰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편 · 객관 · 타당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진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단성, 편향성, 절박성을 오히려 공개시킴으로 해서 이번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이러이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결국 공정성이란 것도 심의위원들 간의 독단적 신념이 부딪치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심의위원들의 편향성과 독단성과 개인적 신념으로 봐서 이 방향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사후에 다 공개하라는 거죠.



> > >

황현산 : 심의위원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 >

손철주 : 그것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 >

오세곤 : 전 미리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인도 책임감 때문에라도 더 신경을 써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겠죠.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험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얘기는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쪽으로 자세 전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면서 좌담을 이만 마치겠습니다.